"평생 현역이 가장 확실한 노후대비"

행복한 자산관리 광주 특별강연회 성황

건강은 보험으로, 생활비는 연금으로 부동산·금융 자산 비율 5대5 유지를

은퇴이후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보험과 연금 가입으로 건강과 자녀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고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비중을 금융으로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창희 미래에셋투자연구소장은 19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복한 자산관리 특별강연회'에서 인생 100세 시대에는 은퇴 준비없이 장수하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가 된다며 철저한 준비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강연회는 광주일보사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가 베이비부머(1955년~1963년 출생)의 은퇴 및 노후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300여명의 방청객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은퇴설계 및 자산관리 최고 전문가인 강 소장은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6대 리스크로 장수·건강·자녀·부동산에 편중된 자산구조·인플레·기업승계 등을 꼽았다.

그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으로 뛰는 것"이라며 "월 50만원의 근로소득은 2억원의 정기예금과 같은 효과가 있는만큼 체면을 버리고 할수 있는 일을 찾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리스크는 보험으로 해결하고 노후의 최저생활비는 국민·퇴직·개인연금 등 연금 3종 세트로 대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목돈을 맡겨서 받는 즉시연금과 주택연금을 활용할 것을 권했다.

수도권 베이비부머 세대의 순자산은 평균 4억8000만원인데 이 가운데 금융자산은 4.2%인 2000만원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불패의 신화에서 깨어나 50~60대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을 5대 5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플레로 돈의 가치가 하락할 때는 저축보다는 투자상품 중심으로 금융자산을 운용해야 한다면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인지와 단서조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사보다는 자산운용회사의 장기 운영능력을 보고 상품에 가입 할 것을 권했다.

신성호 우리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주식시장의 장단기 전망'을 통해 상장사들의 이익이 내년까지는 증가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유럽위기로 현재 주식시장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상당기간 주가가 등락하는 등 기복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신 전무는 그러나 금리나 기업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은 만큼 주가의 심한 하락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시간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적으로 한국시장을 낙관적인 이유로는 세계경제 중심 축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가운데 한국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자금이 실물에서 금융으로 이동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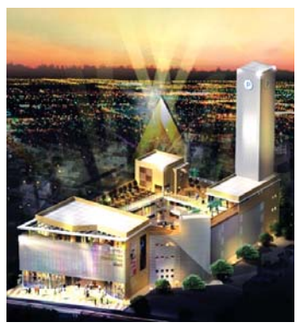
한편 강연회가 끝난후에는 증권사 전문 PB들이 나서 100여명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무료로 맞춤형 자산관리 상담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19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복한 자산관리 특별강연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증권사 전문 PB들로부터 은퇴설계 및 자산관리 상담을 받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리버사이드호텔 헐리고 복합 문화·쇼핑몰 들어선다

3000㎡ 규모 'the Road Hills' 12월말 개장



광주 구도심의 대표적 호텔이었던 리버사이드관광호텔이 헐리고 그 곳에 복합 문화·쇼핑몰 'the Road Hills'가 들어선다.〈조감도〉

'the Road Hills'는 연 면적 3000㎡로 지상 1층~3층, 개방형 옥상, 주차타워 등으로 구성됐다. 오는 12월말 개장 예정이다.

건물은 'ㅁ'자형으로, 기존 층별 형태가 아닌 1층부터 옥상까지 하나의 길로 이어진 신개념 공간으로, 서울 인사동 '쌈지길'과 같은 형태다. 약 7도의 경사로가 만들어 내는 신비함이 특징이다.

또 중앙에는 광장을 조성해 고객들이 쇼핑을 하며 자연스럽게 문화공연 등을 향유할 수 있다.

'the Road Hills'에는 50여개의 다양한 상가가 입주할 예정이다.

1층에는 커피·피자·스테이크·와플 등 다양한 음식점이 들어서고, 2~3층은 보세·브랜드 의류·네일·헤어숍 등이 운영된다. 옥상층은 포토존·이벤트관·클럽 등이 들어선다.

인근에서 영업했던 쇼핑몰 '밀리오레'와 '이프-유' 등이 문을 닫아 수요도 넘쳐난다는 분석이다.

'the Road Hills' 관계자는 "먹을거리·볼거리·스타일 쇼핑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문화쇼핑 공간"이라며 "특히 건물 중앙에 무대·광장 공간을 조성해 댄싱패스티벌·비보이쇼·마술·인형극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광주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950년대 문을 연 리버사이드관광호텔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지난 2003년 8월부터 영업을 중단한 채 빈 건물로 방치돼 있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타이어, 타결이냐 직장폐쇄냐

오늘 임단협 최종안 협상

금호타이어 노사가 20일 임단협 최종안을 가지고 협상을 벌인다. 이날 협상에 따라 '극적 타결'이냐 '직장 폐쇄'로 가느냐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9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집중 교섭을 벌여 단체협약 12개 조항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쟁점사항인 임금 등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노사는 20일 오전 10시 임금부분을 포함한 최종안을 가지고 제21차 본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사측의 최종안에 노조가 수용할 만한 내용이 포함될 지가 이번 교섭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조는 20일까지 조합원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최종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교섭이 결렬되면 노조의 파업 확대와 이에 맞선 사측의 직장폐쇄 등 최악의 충돌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노조는 19일 채권단(산업은행)과 강운태 광주시장을 잇달아 만나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과 조합원들의 고통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최근 실적 개선으로 금호타이어가 정상화된 것은 아니다"며 "그 어느때보다 노사 협력이 필요한 시기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조는 임금 13% 인상, 2010년 노사합의에서 워크아웃 기간에 반납하기로 한 기본급 5%와 상여금 200% 회복, 비정규직 철폐,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사측은 2010년 합의사항(기본급 10% 삭감, 기본급 5%와 상여금 200% 반납 등) 준수를 고수하며, 지난 17차 교섭에서 쟁의행위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격려금 성격의 일시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거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45억달러 흑자, 전남 38억달러 적자

상반기 무역수지 6억 7000만달러 흑자…수출 소폭 증가

올 상반기 광주·전남지역의 수출이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2012년 상반기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 수출은 광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한 68억3100만달러, 전남은 1.9% 증가한 208억4600만달러를 기록했다. 또 수입은 광주가 15.6% 감소한 22억9400만달러, 전남은 5.5% 증가한 247억6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광주 45억3700만달러 흑자, 전남 38억6000만달러 적자로 광주·전남 전체로는 6억7700만달러의 흑자를 나타냈다.

광주·전남지역의 수출 증가율은 전국 평균 증가율 0.6%보다 높은 편이지만 지난해(광주 15.2%, 전남 31.5%)보다는 크게 둔화했다. 특히 2분기 이후 5% 이내의 소폭 증가에 머물고 있다.

품목별로는 광주의 경우 타이어·승용차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고, 가전제품·반도체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전남은 선박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선 반면 합성수지·석유화학제품 수출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수출이 둔화 추세를 보인 것은 중국·미국·EU 시장의 수요 부진에 따른 것으로 하반기에도 유럽의 재정위기 지속과 중국경제 성장 둔화 여파 등으로 큰 폭의 증가율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기료 인상 5% 아래로

지식경제부 한전에 권고

지식경제부가 한국전력에 전기요금 인상률을 5% 미만으로 낮출 것을 공문으로 권고했다.

19일 지경부에 따르면 지경부는 한전이 제출한 10.7%의 요금 인상안을 지난 17일 반려하면서 인상률을 5% 미만으로 낮춰 달라는 내용을 공문에 명시했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16.8%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고 이 가운데 10.7%는 요금 인상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1%는 미수금 형태로 보전받는다는 내용의 인상안을 제출한 바 있다.

/연합뉴스

국민석유회사 광주준비위 주주 모집 캠페인

'착한 기름값' 실천을 목표로 하는 국민석유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활동이 광주에서도 활발하다.

국민석유회사 광주준비위원회는 22일 오전 문빈정사 앞에서 캠페인을 열고 소비자 주주 모집을 홍보할 예정이다.

국민석유회사는 1주당 1만원씩 국민이 주주로 참여해 기름값을 20% 싸게 공급하고 소비자 주권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정 주주의 지배를 막기 위해 1인 소유한도는 전체 주식의 3% 이내로 제한된다.

국민석유회사 설립 준비위원회가 지난달 21일부터 인터넷(www.n-oil.co.kr)으로 주주를 모집한 결과 현재 약 321억5000만 원이 약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코스피지수	1,822.96 (+28.05)
▲ 코스닥지수	478.68 (+5.80)
▲ 금리 (국고채 3년)	2.91% (+0.02)
▼ 원·달러 환율	1,139.10원 (-3.5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